삼성전자, 반도체 R&D 강화한다!

매출 10% 투입 ... D램 · 낸드플래시 기술 개발에 원가 경쟁력도

삼성전자가 2009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권오현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담당 사장은 5월11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D램과 낸드플래시에서 주요 경쟁사와 1-1.5세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오현 사장은 D램과 낸드플래시의 생산 비중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시스템과 시장 수요에 맞추는 멀티 팜, 최고 수율, 투자능력 등을 무기로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삼성전자는 불확실한 반도체 시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64비트 컴퓨터와 윈도우7, SSD 등 신규시장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12>